

사회과학연구의 성과를 담보하는 원칙적요구

로 승 일

우리의 사회과학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에게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의 과학성과 진리성, 독창성과 생활력을 깊이 심어주어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위업실현에 이바지하여야 할 무겁고도 영예로운 사명을 지니고있다.

사회과학연구의 성과를 담보하는 원칙적요구를 정확히 해명하는것은 다양한 사회현상들과 사회적문제들의 본질과 발생원인을 원리적으로 해명한테 기초하여 사회력사발전의 합법칙성을 과학적으로 밝히는데서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주체적방법론의 구현, 리론과 혁명실천의 결합, 력사주의원칙의 견지, 이것은 주체사상에 기초한 사회과학발전의 가장 옳바른 길이며 사회과학연구의 성과를 담보하는 원칙적요구입니다.》

사회과학연구의 원칙적요구는 주체적방법론을 구현하고 리론과 혁명실천을 옳게 결합시키며 력사주의적원칙을 확고히 견지하는것이다.

사회과학연구의 성과를 담보하는 원칙적요구는 무엇보다먼저 주체적방법론을 구현하는것이다.

사회과학연구에서 주체적방법론을 구현한다는것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의 요구대로 모든 사회적현상들과 사회적문제들을 철저히 사람, 인민대중을 중심으로 하여 우리 인민과 혁명의 요구와 리익,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풀어나간다는것을 말한다.

우리의 사회과학이 나아갈 앞길을 밝혀주는 유일무이하게 정당한 사상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이며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인민대중의 본성적지향과 요구를 과학적으로, 전면적으로 반영하고있다.

우리의 사회과학자들이 사회과학을 연구하는것은 인민대중제일주의인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사상리론적 및 방법론적지침으로 하여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사회력사적운동의 고유한 합법칙성에 맞게 진행해나가자는데 있다.

우리의 사회과학연구의 중심에는 반드시 김일성-김정일주의가 밝혀주는대로 인민대중이 놓여야 하며 모든 사회적현상들과 사회적문제들을 우리 인민과 우리 혁명의 요구와 리익,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풀어나가야 한다.

인민대중은 나라와 민족을 기본단위로 하여 혁명과 건설을 진행하고 운명을 개척해나간다.

우리 인민은 그 어떤 다른 나라와 민족을 위한 혁명과 건설을 진행하고있는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이 땅우에서 우리 인민자신을 위한 혁명과 건설, 우리 나라와 민족의 부강번영을 위한 혁명과 건설을 진행하고있다.

현시기 주체적방법론을 구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는 모든 사고와 실천을 창조적으로, 혁신적으로 해나가도록 하는것이다.

사회력사적운동을 일으키고 떠밀고나가는 인민대중의 자주적지향과 요구가 높아지는

것과 함께 우리 혁명과 건설의 조건과 환경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끊임없이 발전해나가고있다.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은 하루빨리 이 땅우에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려는 혁명적신념과 의지를 지니고 초음속비행기의 속도로 10년을 1년으로 주름잡아 노도폭풍쳐 내달리고있다.

인민대중의 자주적지향과 요구가 높아지고 사회가 끊임없이 새로운 높은 단계로 변화발전하는데 따라 사회과학자들도 시대의 선각자들로써 사고와 실천에서 앞서나가야 한다.

우리의 모든 사회과학자들은 시대에 뒤떨어진 구태의연하고 경직된 사고방식을 배격하고 사회과학연구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확고한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높아지는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 빨리 전진하는 우리 혁명의 요구와 우리 나라의 구체적현실에 맞게 혁신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사회과학연구를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에 기초하여 창조적으로, 혁신적으로 해나가는 여기에 인민대중을 중심으로, 우리 나라 혁명과 건설을 중심으로 사회적현상들을 대하며 사회적문제들을 풀어나갈데 대한 주체적방법론을 철저히 구현하여 사회과학연구에서 새로운 비약과 혁신을 일으켜나갈수 있는 근본열쇠가 있으며 우리 사회과학이 자기의 본분을 다해나가는 옳바른 길이 있다.

사회과학연구의 성과를 담보하는 원칙적요구는 다음으로 리론과 혁명실천을 결합시키는것이다.

인식활동과 실천활동은 사람들이 벌리는 활동의 두 분야이다. 실천은 인식의 기초, 추동력일뿐아니라 실천에서 얻어진 리론의 진리성을 검증하는 기준으로 된다.

리론은 실천의 요구에 기초하고 실천적경험을 일반화하여 나온다. 실천의 요구를 반영하여 나온 과학적리론은 실천에 복무하며 실천활동에서 지침으로 된다. 다시말하여 리론과 실천은 통일되어있다.

우리의 사회과학은 혁명과 건설에서 절실히 그 해결을 기다리는 현실적인 문제들, 실천적인 문제들을 옳게 해결함으로써 혁명의 앞길을 과학리론적으로 정확히 밝혀주는것을 자기의 주되는 임무의 하나로 하고있다.

우리의 혁명실천의 요구에 해답을 주지 못하는 허공에 뜬 리론, 실천에서 검증되지 못한 사회과학리론이나 지식은 아무런 의의도 가지지 못한다.

그러므로 사회과학자들은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 우리의 혁명실천에서 절실하게 제기되는 사회적현상들과 사회적문제들을 찾아내어 연구대상으로 삼고 깊이있게 풀어야 하며 연구성과를 혁명실천에 구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내다보면서 사회과학연구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우리의 혁명실천과 밀접히 결부하여 원리적으로 깊이있게 해명하고 우리의 사회과학을 발전시킴으로써 모든 사회과학부문들을 세계적인 앞자리에 확고히 올려세워야 한다.

이와 함께 사회적현상이나 력사적사실을 단순히 해석하는데 그칠것이 아니라 그 본질과 합법칙성을 과학적으로, 원리적으로 명백하게 밝혀 사회적운동과 력사발전을 추동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리론과 혁명실천을 결합시키는데서 리론적깊이를 보장하는것이 중요하다.

사회과학연구에서 리론적깊이를 보장하지 못하면 새롭게 나타나는 사회적현상들과

설정된 사회적문제들의 본질과 발전의 합법칙성을 정확히 밝혀낼수 없으며 결국 과학으로서의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사회과학자들은 철학성이 있는 글, 창조적사색이 있는 과학리론글들을 많이 써내도록 하여야 한다.

사회과학연구에서 리론적깊이를 보장한다고 하여 일부 제한된 전문가들이나 이해할수 있게 글을 어렵게 써서는 안된다. 사회과학에서 철학성이 있는 글이나 창조적사색이 깃든 글은 이해하기 힘들고 까다로운 글과 아무런 인연도 없다.

우리의 모든 사회과학자들은 사회과학연구에서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적문풍을 적극 따라배워 우리 인민들이 누구나 다 보고 이해할수 있게 글을 통속적으로 써야 한다. 론리가 정연하면서도 우리 인민들모두가 보고 통속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글속에 깊은 뜻을 담아내는것이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적문풍이다.

리론과 혁명실천을 밀접히 결합시키는 원칙에서 사회적현상들과 사회적문제들의 본질과 발생원인, 그 발전의 합법칙성을 리론적깊이가 보장되게 밝혀내면서 주체적사회과학을 발전시켜나갈 때 우리의 모든 사회과학부문들이 더욱 큰 생명력과 생활력을 가지고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위업실현에 적극 이바지하게 된다.

사회과학연구의 성과를 담보하는 원칙적요구는 다음으로 력사주의원칙을 견지하는것이다.

력사주의원칙은 사회적현상들을 그 발생, 발전의 구체적환경과 조건들과의 련관속에서 파악하는 사회과학의 연구원칙이며 과학적태도이다.

모든 문제를 력사적인 조건과 환경에서 떼내어 추상적으로 보아서는 안된다.

일정한 력사적조건과 환경을 떠나 발생발전하는 사회적현상이나 사회적문제란 있을수 없다.

객관세계의 사물현상들이 일정한 조건밑에서 다른 대상들과의 유기적인 련관속에 존재하면서 끊임없이 운동변화발전하는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사회현상들과 사회적문제들도 구체적인 력사적조건과 환경에서 발생발전한다. 다시말하여 사회과학의 연구대상들, 모든 사회현상들과 사회과학이 해결하여야 할 사회적문제들은 구체적인 력사적환경속에서 발생발전하여 사람, 인민대중의 운명개척과 사회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사상이나 리론들, 력사적사실들과 유적유물들이다.

이것은 사회적현상들과 사회적문제들을 력사적조건과 환경에서 떼내어 추상적으로 연구하여서는 안된다는것을 말해준다.

사회과학연구에서 력사주의원칙을 옳게 구현하여야 지난 시기에 제기되었거나 오늘의 혁명실천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구체적인 력사적조건과 환경과의 밀접한 련관속에서 옳바로 밝혀내고 공정하게 평가할수 있으며 그것이 지금은 물론 먼 앞날에 가셔도 가치를 가지게 할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과학연구에서는 력사적조건과 환경을 무시하고 주관적으로, 자의대로 분석하거나 평가하지 말아야 하며 사실을 과장하거나 외곡하지도 말아야 한다. 글을 쓸 때 주관적표상에 사로잡혀 쓰지 말고 하나의 문제를 설정하고 표현을 하나 써도 력사적사실과 자료에 근거하여 명확하게 쓰는것을 철칙으로 삼아야 한다.

력사주의원칙을 견지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는 우선 사회적현상들에 대한 연구

에서 구체성을 보장하는것이다.

사회적현상들에 대한 연구에서 구체성을 보장한다는것은 사회적현상들에 대한 연구에서 그것을 발생발전시키는 구체적인 조건, 역사적인 환경과의 유기적인 연관속에서 분석한다는것을 의미한다.

력사주의원칙을 구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는 또한 사회적현상에 대한 연구에서 객관적합법칙성에 의거하는것이다.

현실세계의 모든 사회적현상들은 일정한 합법칙성을 띠고 발생발전한다. 그러므로 사회적현상들에 대한 연구에서 객관적합법칙성에 의거하는것은 사회적현상들을 정확히 인식할수 있게 하는 조건으로 된다.

모든 사회과학연구부문에서 력사주의적원칙을 철저히 구현해나갈 때 주체의 사회과학의 과학성과 진리성은 보다 뚜렷이 증명될것이며 주체의 사회과학은 오늘뿐아니라 래일에도 영원히 사람들의 운명개척의 옳바른 길을 밝혀주는 참다운 지침으로 되게 될것이다.

모든 사회과학자들은 사회현상들과 사회적문제들을 주체적방법론에 철저히 의거하고 리론과 혁명실천을 밀접히 결합시키며 력사주의적원칙을 확고히 견지하는 원칙에서 풀어나감으로써 우리의 사회과학이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위업을 실현하는데 적극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할것이다.